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13	06. 20	06. 27
대 표 기 도	김남희 집사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성 경 봉 독	김남희 집사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성경읽기 - 역사서(수~에) 1일 5장 읽기 7월 22일(60일)까지
2. 정기 제직회 - 13일(주일) 오후 5시,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교회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장용환 형제(7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11장 다같이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수 17 : 10 - 13(구p345) ... 정용현 안수집사
 (Josua 17:10~13)
 설 교 Predigt 신앙의 화룡점정!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14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남희 집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글을 쓸때면 저는 높은 수준의 삶이 무엇인지를 서술합니다. 글을 쓸때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므로 무엇이 올바른 기도이고 신앙생활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글을 쓰고 나면 섬세한 분별력을 잃고 때로는 글의 내용과 상치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것이 마치 기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글쓰기를 멈추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잘한 것이라 여겼던 예전의 행동에 어떤 흠이 있었는지도 깨닫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글을 쓰고 생각하며 기도하다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 방에 혼자만 있을 때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 거룩하고 두려운 자리에 서는 순간에 제 정체가 모두 드러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럴 때면 너무 두려워 눈도 뜨지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예수님을 생각해내고는 가만히 눈을 뜹니다. 떨리는 가슴을 달래며 그때 제 삶에서 과연 하나님께 보여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선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생각으로 결정한다면 복잡하게만 보이던 일들도 단순하고 명쾌해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드렸던 기도제목 중 많은 것을 다시 수거하게 될 것이며 추구하는 삶의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 / 정요석 목사
 (서울 세움교회 담임)

* 진정한 기도란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쏟아붓는 것이다.
 - John Bunyan 목사(영국, 1688년 8월 사망) -